

# 물의 循環과 人生行路

박중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

## 1. 물의 역학

河水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혀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 과도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戰車 萬乘과 戰騎 萬隊나 戰砲萬架와 萬座로서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죽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무는 어둡고 킁킁하여 물지킴과 하수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蛟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 싶었다. (朴趾源(1737-1805)의 『熱河日記』중 『一夜九渡河記』에서)

이글은 하루밤에 白河를 아홉 번 건너면서 느낀 물의 역동적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물에 대한 느낌은 이같이 세찬 경우도 있지만 개울물처럼 부드러운 느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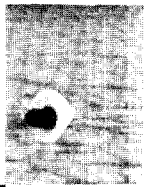
두 가지 상반된 느낌에서 먼저 물에 대한 力學을 전개할 수 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하듯이, 물의 힘은 이중적 구조 속에서 들여다보아진다. 부드러움 속에 깃든 강한 힘, 이른바 '靜中動'의 역설적인 힘을 드러낸다. 이 역설은 풍꽁 언 한겨울 얼음장 밑을 줄줄줄 흐르는 물의 생명력에서도 엿보인다. 그래서 '智者는 樂水요 仁者는 樂山이라' 했는지도 모른다. 너그러운 자에게서 품이 넓은 산의 넉넉함이 느껴졌다면, 지혜로운 자에게서 世波를 헤쳐가는 내면의 강한 힘을 꼬집어 내었을 터이다. 이것이 물의 다이

내믹(dynamic)이다.

힘이 있는 자는 서두르지 않는 법이다. 힘이 있는 물도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손빈(孫)이 방연(龐涓)으로 하여금 暮至馬陵(방연이 저녁시간 마릉으로 퇴각할 것을 유도한 것)케 하고, 제갈량이 조조로 하여금 華容道 계곡으로 퇴각케 하는(적벽대전 후 조조의 퇴각로에서 기다린 것) 心法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두둑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그 믿음은 자신을 믿은 지혜로운 자의 품모일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 주변에서 찾는다면 忍耐力이란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댐의 물은 滿水가 되어야 비로소 흘러내린다. 아무리 희망이 에타게 기다려지지만 인간 세상사의 험난한 고비라는 인내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찾던 바람이 다가오듯이, 언젠가는 흘러내릴 날이 올 것이다. 또한 제 아무리 높은 댐일지라도 언젠가는 만수가 될 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과 인내는 같은 궤도를 맴도는 물의 두 속성이다.

물은 흘러내린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래로 흘러간다. 한 없이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 대목에서 우리는 인생행로의 지향점을 엿보게 된다. 下心하라 고도 하고 마음을 비운다고도 하고, 머리를 숙인다고도 하는 여러가지 깨달음의 충고에서 또다른 물의 다이내믹을 읽는다. 익은 자일수록 겸손의 미덕이 돋보이고 위대한 자일수록 한 없이 낮은 태도를 보게된다. 물은 過慾의 부작용을 이미 터득하였던 것이다.

無心한 마음이란 그저 물처럼 한없이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는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마음일 것이다. 좁은 길이 나오면 서둘러 가고 넓은 길이 나오면 유유히 흐



## 특별기고

르고, 바위를 만나면 에돌아 가고... 그래서 大海에 이르르면 우리는 이름하여 大人이라 할 것이며, 깨달음을 성취한 聖者라 할 것이다.

낮은 것이 평가절하 당하는 현대에서 이렇게 낮은 것에서 얻어지는 귀중한 힘을 느끼는 지혜가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마음 중의 하나이다. 아래로 흐르는 물에서 현대 문명의 커다란 동력 중 하나인 전기를 얻는 것처럼 말이다.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흘러내리는 물이 큰 낙차라는 계기를 만나면 전기라는 에너지를 발생케 한다.

어떤 것이든 한 면만 보아서는 당혹할 경우가 많다. 이 세상에 하나만 옳은 경우란 없다. 언제나 동전의 앞뒤 양면같이 두 측면을 아울러 드러낸다. 이 둘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해안이 열렸다고 하여 왔다. 無心の 논리도 마찬가지이다.

無心은 아무런 마음이 없는 마음이 아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無心한 마음이라 하여 아무런 감응도 흥취도 없는 마음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고요히 흘러가는 강물이지만 한 번 요동치면서 내는 자연의 힘이란 역시 경외로운 것이다. 곧 無心이라는 물의 다이내믹은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 행로에서 커다란 힘을 내장한 무엇임을 보여준다.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고 물이 얕으면 요란한 것도 이런 無心の 다이내믹을 보여주는 또다른 물의 力學이다. 우리는 이것을 깊은 학문과 얕은 학문의 소리 없음과 요란함에서 쉽게 유비할 수 있다. 어떤 분야의 巨匠이라든가 大家라는 것은 無聲의 미덕과 강력한 힘을 동시에 지닐 때 붙여지는 칭호이다. 물이 흘러가면서 급류를 만날 때 내는 무서운 파괴력은 그러한 의미의 힘이다. 이렇게 靜中動이라는 물의 역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인생행로의 훌륭한 비유이다.

## 2. 물의 社會學

그러면 이제 물의 처세술을 들여다보자.

물이 살아가기 위해 행하는 몸짓 중 커다란 특징의

하나는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간다는 태도이다. 이것이 첫번째로 취하는 자연에의 순응 태도이다. 독불장군은 不立이라 하면서 물은 서둘러 돌아가기 바쁘다. 돌아가려는 그 마음은 무엇보다 현재의 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에게도 장애물이지만 그 역시 자연의 질서를 이루는 한 존재임을 승인하는 그 마음에서 大乘의 자세를 엿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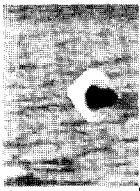
어쩌면 이 물의 태도가 비겁한 자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물은 자연에 순응한 것이지 혁명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하류로 갈수록 강가에 나뭇구는 수많은 돌맹이들, 바닷가에 밟히는 수없는 모래알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물이 결국은 장애물을 극복하여 승리하였음을 淸표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한 순간 기세 좋게 불타올랐다가 시세가 변하여 타협하고 마는 무리의 몸짓은 적어도 아니다.

끝없는 의식을 장애물에 묻지르고 도전하는 그 태도, 이것이 두번째로 취하는 물의 변혁 정신이다. 자기 당대에서 완성을 이루어야겠다는 성급한 자세가 아니라, 앞서 장애물에 부딪쳐간 물의 문제의식을 잊고, 이어서 따라올 뒷강물을 믿고서 나는 지금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이다. 여기에서 나는 순간적이지만, 전통이 있고 계승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른바 축적과 희생의 두 측면을 보여준다. 이 마음이 소중하다.

믿음을 위해 순교하는 자만 희생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만이 희생은 아니다. 작은 것이 남기는 이어짐의 철학은 현대의 사회에서 귀중한 태도이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 모여 바다가 된다.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사회가 구성되고 사회가 모여 세계가 이룩된다. 이러한 물과 사람의 사회 형성 구조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의 통찰을 보여준다.

그 하나는 작은 것이 지니는 자리이다. 앞의 점증법 논리는 분명히 작은 하나하나가 큰 것의 구성원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한 숫자의 집합을 사회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속에서 하나가 작은 것이 아니



## 특별기고

다. 전체 속에 나열되는 나를 볼 때 작은 것이며, 나를 통해 전체를 볼 때 나는 위대한 하나이다. 一即多 多即一의 華嚴사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하나와 전체가 둘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통해 전체를 볼 수 있고 하나 속에 전체를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지혜의 요청이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으로서의 나는 작은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 나가 이룩하는 세계가 결코 작아서는 안된다. 내가 一即多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개성을 구축할 때 가능하다. 자기의 직종에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또다른 통찰은 흙어짐과 뭉침의 논리이다. 떼어내면 한없이 미약한 것이 물의 존재이지만, 모일 때는 한없는 힘을 발휘하는 것도 물의 존재라는 점이다. 마른 땅에 부어지는 한 잔의 물이 무슨 흔적을 남기랴마는, 그 한 잔의 물이 없어서 어떻게 대지를 적시는 큰 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날날은 자기개성으로 존재를 대변하며, 뭉친 전체는 작은 것의 희생과 이어짐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전체로서의 물은 다시 자정 작용이라는 사회 기능을 수행한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지키는 제일 파수꾼을 우리는 물의 자정 작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 하늘에서 비가 온 뒤에 북한산을 청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뉴스거리가 되는 얘기이다. 이런 날이면 어김없이 TV나 신문에서 기사거리로 등장시키기 때문이다. 양식업을 망치는 녹조현상이나 식수를 오염시키는 사건 역시 뉴스거리이다. 물이 자정작용할 능력을 잃었다고 하소연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물 만큼 자신을 희생하고 남의 더러움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 존재가 어디 있을까 싶다. 이것을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큰사랑과 같지 않겠는가, 진공청소기의 편리함도 많지만 물걸레로 방을 훑치는 것이 그래도 더 미더운 것도 이러한 기능의 반영일 것이다.

## 3. 물의 哲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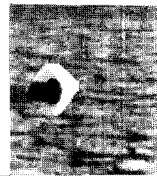
맛좋은 물은 외기보다 7-8℃ 낮을 때, 대개 섭씨 12℃일 때 그렇다. 그런데 이 때의 맛이란 무색무취의 無味라는 맛이다. 시중에 탄산음료나 맥주나 많이 시판되지만 無味の 물이 가장 맛좋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제 이를 좀더 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들어가보자. 곧 물과 종교적 사고에 대한 통찰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

신맛, 매운맛, 짠맛 등 여러 맛 중에서 無味가 모든 맛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탕이 되며 최고의 맛이라고 한다. 동양의 五行사상에서 이 無味에 해당하는 중앙은 土德으로 설명되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대지를 기반으로 존립하기 때문에 土를 오행 중의 體로 삼는다.

또다른 측면으로 五行사상에서 물은 만물의 근원이 된다. 그리이스 철학자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통찰한 바의 물이란 오행사상의 水를 설명한 말이다. 우주의 변화를 五行의 변화로 파악하는 것이 오행론의 골간인데, 그 오행의 변화가 바로 水氣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겨울 뿌리 끝에 잠장되던 水氣가 봄이 되면 가지 끝으로 나와(木) 여름에는 무성한 잎들로 발산되며(火),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 성숙되는(金) 자연의 변화 법칙을 물의 변화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 水氣가 마른 생물은 죽음(土)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처음 자라나는 환경은 養水라는 모태의 물 속에서이며, 선사시대 이래 인간의 주된 주거지가 河川을 끼고 있는 곳임은 이미 고고학의 성과가 여실히 밝히고 있는 바이다. 고려시대 이래 널리 행해진 風水사상의 핵심은 藏風得水로 바람을 막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得水의 관건을 인간 주거지의 최대 관건으로 삼은 철학이 다름 아닌 풍수사상임을 알 수 있다.

五行의 순서에는 보통 세가지 정도가 주목된다. 水火木金土는 생성의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며, 木火土金水라는 것은 소위 相生의 과정으로 늘어놓은 것이



며, 水火金木土는 相剋의 과정을 보여주는 순열이다. 이 중 첫번째의 생성 순서론에서 水氣가 火氣로 이어지는 대목이 특이하다. 상극의 논리로 보면 水克火하는 관계이므로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 물과 불의 관계인데, 물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니 대단한 역설임에 틀림없다.

이 역설의 배경은 만물의 근원이 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水氣는 자기의 모습을 최대로 분화시켜 전혀 이질적인 火氣를 내놓음으로써 비로소 水火의 交互작용 기틀이 마련되고, 이 물과 불의 두 양대 기운의 對代작용으로 인하여 만물의 변화가 성립한다고 한 것이다.

이런 원리의 대표적인 표상을 日·月의 상호작용에서 찾는다. 하늘의 水火를 태양과 달에서 찾았다면, 땅의 水火는 日月의 운행 주기에서 비롯되는 10天干과 12地支의 曆學 논리에서 찾는다. 전근대 이전 농사 일정에 12月令說은 매우 중요하였다. 사람의 水火는 日의 대행자인 心臟과 月의 대행자인 腎臟에서 찾으며, 여러 가지 동양 修鍊法의 기저 논리가 바로 이 심장의 火氣를 아래로 내리고 신장의 水氣를 위로 올려(水昇火降) 물기운이 몸 전체를 통하여 근원을 되살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물과 불의 이중주 사고방식은 물을 만물의 근원에 두고, 다시 그 물의 가장 자기 반대 모습인 불을 내놓음으로 해서 비로소 역동적인 변화가 설명된다고 보는 데 있다. 불은 결국 물의 또다른 모습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 4. 물과 人生行路

空手來 空手去란 말이 있다. 올 때도 빈 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 손으로 간다는 것. 흔히 죽을 때 싸들고 가는 것이 아니니 제발 과욕을 부리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은 대승불교의 空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우리 일상 관념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空의 철학을 가장 잘 응변하는 존재가 물이라는 점이다. 大海에 모여든 물이 태양의 힘에 의해 증발하면 雲水가 되는데, 그때 순수하게 물(H<sub>2</sub>O)만 증발된다. 만일 물의 증발과 동시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염분, 미량 중금속 등이 함께 증발한다면 이 세계는 이미 수억년전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또한 새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가 순수하지않고 물욕, 권력욕, 명예욕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 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지라도 결국은 모두 놔두고 홀로 떠나는 것이다. 이 만큼 空手來 空手去인 것이 또다시 있으랴!

그런데 이 雲水의 존재가 전체 물의 0.013%에 불과하다. 그 만큼 천당가는 것이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없이 아래로 흐르는 물의 다이내믹을 거울 삼아 과욕을 자제하고 無心의 역설을 구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하늘로 올라간 雲水가 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똑같은 모습을 띠는 것은 아니다. 같은 물이 기운, 기압의 변화에 따라 고체, 기체, 액체의 여러 상태로 모습을 가진다. 비, 눈, 우박 등. 같은 비라도 산성비가 있다. 같은 비라도 식물이 되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 되고, 소가 먹으면 소가 되고 새가 먹으면 새로태어나게 된다는 것은 불교의 輪廻사상과도 같다.

불교 윤회사상의 원형인 인도의 우파니샤드사상(B.C.1000년에서 B.C.200년 사이에 성립)에 보이는 윤회 논리에는 이 비가 식물에게 먹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식물에 흡수되어야 그 식물이 사람의 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윤회사상에 대한 설명에서, 死者는 화장 후에 연기가 되어 달(月)로 올라간다. 그리고 비가 되어 지상에 다시 와서 식물이 된 뒤 사람들에게 먹힘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렇듯, 물이 보여주는 여러 존재 원리와 운동 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행로의 소중한 통찰력을 확신하게 된다. ●